보도자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5 층 (04637)
2020.07.02	김정현 과장 (02-6261-2715, jeonghyun.kim@ecck.eu)
버드니저	본 자료는 <b>7 월 3 일 (금) 조간</b> 이후 보도바랍니다.
보도시점 	(인터넷: <b>7 월 2 일 (목) 16:00</b> (행사시작) 이후)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비즈니스유럽, '한-EU 비즈니스 컨퍼런스 2020' 공동개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과 공동으로 2 일 '한-EU 비즈니스 컨퍼런스 2020'를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6월 30일 진행된 한-EU 정상회담에 연이어 코로나 19이후 급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기업들이 맞이할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 및 유럽계 글로벌 기업임원진들이 연사로 참여해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한국과 유럽에서 약 500 여명의 기업인,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온라인 화상을 통해 참가하였다.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19 로인해 전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생산 및 무역 규모가 축소되며 '뉴노멀'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에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며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 주년을 계기로 양측의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파트너쉽을 강화해 지금의 어려움을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비즈니스 환경이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과 EU 는 미래자동차, 2 차 전지, 바이오 · 헬스케어 등 신성장 산업의 성장에 따라 더욱 긴밀해질 수밖에 없고 비즈니스 협력기회 역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성공적인 '한-EU 비즈니스 컨퍼런스 2020' 개최를 축하하며 영상메시지를 보내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 와 한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10 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 더욱 굳건한 협력을 통해 유럽과 한국의 기업들이 보다 더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참여 연사들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즈니스 관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션 1 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미래'를 주제로 코로나 19 로 인한 글로벌 벨류 체인 (GVC)와 경제 혼란을 이겨내기 위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엑카르트 폰** 클라에덴 (Eckart VON KLAEDEN) 메르세데스-벤츠 대외협력 부사장은 코로나 19 로 인해 더욱 부각되는 글로벌 밸류 체인 (GVC)의 중요성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효율성을 위한 국제적 표준의 통일성에 대해 발표했다. "자유 무역은 코로나 19 이전부터 압력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과 EU 역시 FTA 에 기반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며"이번 한-EU 비즈니스 컨퍼런스는 국제 협력과 세계 무역체제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메커니즘을 식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였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세훈 현대자동차 전무이사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발생에 '그린 뉴딜'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환경 산업에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꼽았으며, 한국 및 EU 의 수소비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수소는 자동차, 선박, 기차, 도심형 항공기(UAM) 등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수소경제는 탄소사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능성이자 한국과 EU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과제'란 주제로 진행된 세션 2 에서는 코로나 19 로 인한 '언택트 (untact)' 의료체계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급격한 성장과 미래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황상준 마크로젠 상무이사는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며 "원격진료 등 의료진과 환자 혹은 환자 간에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의료체계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핵심적인 뉴 노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비대면 의료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엘리자베스 스타우딩어 (Elisabeth STAUDINGER)**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대표는 "코로나 19 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전환을 위한 도약의 기회이다"라고 말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상호의존성이 어느때보다 더 강화된 시점에 한국과 유럽 간의 비즈니스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럽 측은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엑카르트 폰 클라에덴 (Eckart VON KLAEDEN) 메르세데스-벤츠 대외협력 부사장, 알렉시스 브룬스 (Alexis BROUHNS) 솔베이 상무이사 및 마커스 베이어 (Markus BEYRER) 비즈니스유럽 사무총장, 엘리자베스 스타우딩어 (Elisabeth STAUDINGER)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대표가 참여했다. 아울러, 이호석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디렉터와 알리 이자디-나야파바디 (Ali IZADI-NAJAFABADI) 블룸버그 NEF 아시아태평양지역 리서치 총괄이 모더레이터로 참여했다.

또한 한국 측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세훈** 현대자동차 전무이사, **김성열** 씨젠 상무이사, **황상준** 마크로젠 상무이사 등 기업인이 패널로 참석했고, **윤순구** 주 EU 한국 대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금번 행사는 한국과 유럽 기업 상호간 우호증진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한 ECCK 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 노력의 일환이다. ECCK 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본 행사를 통해 한국과 유럽이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더욱 공고한 협력을 추진하는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확신한다.

한편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 년에 설립했다. 현재 35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 만여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 [첨부] 행사개요

주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대한상공회의소, 비지니스 유럽(BusinessEurope)

**일시:** 2020 년 7 월 2 일(목) 16:00~18: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EC 룸, 온라인 화상 진행

시간	내용
16:00 – 16:30	개회사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윤순구 주 EU 한국대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
16:30 – 17:15	세션 1
	(진행) 이 호석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디렉터
	(패널) 엑카르트 폰 클라에덴 (Eckart VON KLAEDEN) 메르세데스-벤츠 대외협력
	부사장, 김세훈 현대자동차 전무이사, 알렉시스 브룬스 (Alexis BROUHNS) 솔베이
	상무이사 및 마커스 베이어 (Markus BEYRER) 비즈니스유럽 사무총장
17:15 – 17: 55	세션 2
	(진행)알리 이자디나야파바디 (Ali IZADI-NAJAFABADI), 블룸버그 아태 연구 총괄
	(패널)엘리자베스 스타우딩어 (Elisabeth STAUDINGER)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대표, 김성열 씨젠 상무이사 및 황상준 마크로젠 상무이사
17:55 – 18:00	폐회

(끝)

# PRESS RELEASE

Embargoed: Not for Release Until July 3 (00:01) / Online: July 2 (16:00)

#### ECCK-KCCI-BusinessEurope, Co-Hosts 'EU-Korea Virtual Business Conference 2020'

Seoul, Korea, July 2, 2020: 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hosted 'EU-Korea Virtual Business Conference 2020'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and BusinessEurope on July 2 at the KCCI Executive Conference Hall.

Following the successful EU-Korea summit held on June 30, the 'EU-Korea Virtual Business Conference 2020' was organized to discuss the challenges that business face in the rapidly changing global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bring attention on how to prepare for the 'New Normal' in the post-corona era. The online conference was joined by more than 500 industry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and academics from both Europe and Korea simultaneously.

The conference opened with welcoming remarks from the co-hosts in Korea, ECCK and KCCI. In his welcoming speech, **Dirk LUKAT**, Chairperson of ECCK and CEO of Schenker Korea, said "The novel coronavirus pandemic has greatly disrupted domestic and global supply chains, shrinking production and trade worldwide. Also, it has forced companies to re-examine how they do business in order to survive in the 'New Normal' era. With the 10<sup>th</sup>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EU and Korea, it is vital to further develop our partnership and turn these challenges into new opportunities together."

**WOO Tae-hee**, Vice Chairman of KCCI, delivered opening remarks in which he also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the partnership between the EU and Korea. Vice Chairman Woo said, "In the face of a high-turbulence environment, we must make sure to capitalize on new business opportunities before u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EU will become closer and more diverse in the future, as demand for new growth industries such as future mobilities, secondary batteries, and bio-healthcare increases."

**Ursula VON DER LEYEN**,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sent a congratulatory video message for the successful organization of the 'EU-Korea Virtual Business Conference 2020'. In her message, President von der Leyen said, "As we enter the second decade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EU and Korea, let's ensure that European and Korean businesses work hand-in-hand to become more sustainable and lead us in the digital innovation. This would be the right approach for the future."

The conference was divided into two sessions, and the participating speakers took part in indepth discussions on the business perspectives on a new future. On the topic of 'The Future of International Trade', the first session focused on the business disruption and global value chains (GVC) challenges from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and companies facing the economic turmoil.

During the session, **Eckart VON KLAEDEN**, Head of External Affairs at Daimler AG, addressed the growing significance of GVCs and the need for internationally aligned standards for greater efficiency in the global automotive industry. Mr. VON KLAEDEN also noted, "Free trade has been under pressure for some time,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further added

to it. The EU-Korea Virtual Business Conference present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identify mechanisms that will help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global trade framework."

**KIM Saehoon**, Senior Vice President of Hyundai Motor Group, stresse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growth and renewable energy businesses such as the Korean government's 'Green New Deal' plan,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hit har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Mr.KIM highlighted the development of hydrogen economy as the main item of the new green energy policies. "Hydrogen can be used in a variety of future mobility environments, such as automobiles, ships, trains, and urban air mobility (UAM). The hydrogen economy is a new possibility to replace the carbon society and a future growth engine for both Korea and the EU."

In a separate discussion, under the theme of 'Challenges Ahead in the New Normal', the European and Korean business leaders focused on the rapid growth and future of the global digital healthcare, such as the 'untact' (non-face-to-face contact) medical system.

**HWANG Sangjoon**, Senior Vice President of Macrogen said, "It is unlikely that our daily lives will go back to the way things were before the breakout of COVID-19. This is the 'New Normal'." Mr. HWANG noted that 'untact' healthcare system that minimizes contact between medical staff and patients, such as telemedicine, will become the 'New Normal' in the bio-health care sector.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and analyzing medical data was emphasized for accurate diagnosis of telemedicine.

"COVID-19 provides the opportunity to leapfrog in the adoption of digital health," said **Elisabeth STAUDINGER**, President of Asia Pacific and Greater China at Siemens Healthineers. "The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Europe is paramount, especially now when the global interdependency of the healthcare sector is greater than ever before."

Additional key speakers from the European side included, **Alexis BROUHNS**, Head of Government Affairs at Solvay, and **Markus BEYRER**, Director General of Business Europe. Also, **Hosuk LEE**, Director of the European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ECIPE) and **Ali IZADI-NAJAFABADI**, Research Director of Bloomberg NEF Asia-Pacific Region, participated as moderator of the sessions.

On the Korean side, additional participating speakers include **KIM Eugene Seong-Youl**, Managing Director of Seegene, and **YOON Soongu**,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EU.

This conference symbolizes the efforts of ECCK and KCCI to shed light on the trends of the industry and promote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European businesses. ECCK hopes to strengthen the level of cooperation and expand busines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between Europe and Korea.

Established in 2012, ECCK is a business association of Europ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Korea. Today, the Chamber represents 350 companies who generate a turnover of 71 trillion Korean won, employing directly 50,000 people in Korea.



### [Attachment] 'EU-Korea Virtual Business Conference 2020' Outline

**Hosts**: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BusinessEurope

Date & Time: July 2, 2020, 16:00~18:00

Venue: KCCI Executive Conference Room, Online Virtual Meeting

Time	Note
16:00 – 16:30	Opening
	Dirk LUKAT, Chairperson of ECCK and CEO of Schenker Korea, WOO Tae-hee,
	Vice Chairman of KCCI, YOON Soongu,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EU, Ursula VON DER LEYEN,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Video Message)
16:30 – 17:15	Session 1
	(Moderator) Hosuk LEE, Director of the European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ECIPE)
	(Panelists) Eckart VON KLAEDEN, Head of External Affairs at Daimler AG, KIM
	Saehoon, Senior Vice President of Hyundai Motor Group Alexis BROUHNS, Head
	of Government Affairs at Solvay, Markus BEYRER, Director General of Business
	Europe
17:15 – 17: 55	Session 2
	(Moderator) Ali Izadi-Najafabadi, Research Director, Bloomberg NEF Asia-Pacific
	region
	(Panelists) Elisabeth STAUDINGER, President Asia Pacific and Greater China at
	Siemens Healthineers, KIM Eugene Seong-Youl, Managing Director of Seegene,
	HWANG Sangjoon, Senior Vice President of Macrogen
17:55 – 18:00	Closing

(ENDS)

### **Contact:**

Jeong Hyun Kim
Manager of PR & Communications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jeonghyun.kim@ecck.eu, +82 (0)2 6261 2715